

주전 공백 메운다…KIA, 1번 타자·외야수 찾기 총력

日 아마미·오키나와 스프링캠프서 25일부터 실전 준비 돌입
신인·외국인 등 42명 참가…박찬호·최형우 빈자리 보완 고심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 선수단 명단이 확정됐다. 42명의 선수가 일본에서 어필 무대를 갖는다.

KIA가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의 아마미카와소 구장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이범호 감독을 필두로 21명의 코칭스태프, '주장' 나성범을 중심으로 한 선수 42명 등 63명의 선수단이 캠프에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21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9명으로 구성됐다. 2026 루키 중에서는 투수 김

현수와 외야수 김민규가 명단에 포함돼 프로 첫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이번 캠프는 1·2차로 나눠 진행되면서 25일부터 아마미에서 1차 캠프가 시작된다.

아마미에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는 선수단은 이후 2월 22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2차 캠프에 나선다. 오키나와에서는 실전 준비가 이뤄진 다.

24일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한화(3월 1일), 삼성(3월 2일), KT(3월 5일), LG(3월 6일)와 연습 경기가 예정됐다.

KIA는 킨구장에서 연습 경기와 훈련을 병행하

면서 2026시즌 밑그림을 완성한 뒤 3월 8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은 1번 타자와 코너 외야수 찾기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에는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타선의 베테랑 최형우가 FA로 각각 두산과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두 선수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박찬호의 역할을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제리드 데일에게 맡길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11월 마무리캠프에서 직접 데일을 살펴 보면서 면면을 확인했다. 이범호 감독은 수비는 물론 공격적인 성향의 타격까지 일단 합격점을 줬다.

지난해 일본 NPB의 오릭스 버팔로즈의 육성 외국인 선수로 뛰면서 쌓은 세밀한 야구에 대한 경험도 기대감을 키운다.

아시아쿼터로 유격수 불확실성을 지운 뒤 김규성

과 박민 등 신에 자원으로 빈틈 없이 144경기를 이끄는 게 이범호 감독의 전략이다.

최형우의 빈자리는 '지명타자 카드'로 채운다.

이범호 감독은 부상 변수를 안고 있는 김도영과 함께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을 지명타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비 조절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면서 전력을 극대화하는 게 이범호 감독의 구상이다.

김도영이 지명타자로 들어서면 지난해 경험을 쌓은 내야수들이 3루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데일도 3루수로 기용할 수 있다. 김선빈이 지명타자로 컨디션을 조율하는 날에는 윤도현이 우선 2루수로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나성범의 대체 선수다. 지명타자 나성범을 대신해 확실하게 우익수 자리를 지켜줄 선수를 찾는 게 이범호 감독의 고민이다.

한편 데일과 함께 새로 합류한 외국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고향팀 유니폼

을 입은 투수 이태양과 내야수 이호연도 이번 캠프를 통해 새 팀에서의 적응을 끝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스프링캠프 명단

▲감독 : 이범호 ▲코칭스태프(20명) : 손승락, 김주찬, 조승범, 이동걸, 김지용, 이해창, 박기남, 고영민, 김연훈, 방석호, 신용진, 이진우, 박규민, 장세훈, 정상욱, 노민철, 이상섭, 조희영, 박준서, 유지훈 ▲투수(21명) : 양현종, 이태양, 이준영, 전상현, 네일, 올리, 김시훈, 김기훈, 김현수, 정해영, 한재승, 이의리, 황동하, 최지민, 광도규, 이도현, 성영탁, 김태형, 양수호, 홍민규, 김현수(신인) ▲포수(3명) : 김태군, 한준수, 주효상 ▲내야수(9명) : 김선빈, 오선우, 이호연, 김규성, 박민, 김도영, 윤도현, 정현창, 데일 ▲외야수 : 나성범, 김호형, 카스트로, 박정우, 김석환, 정해원, 한승연, 박재현, 김민규(신인)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는 법을 잊었다

안세영, 인도오픈 2연패…새해 2주 연속 우승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금빛 스메시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단 43분 만에 2-0(21-13 21-11)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에 이어 새해 들어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최근 10연승을 달리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8승 4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중국 언론과 팬들은 안세영에게 유독 약한 흐름을 두고 안세영의 성을 딴 신조어 '공안중'(안세영 공포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결승전 역시 안세영이 시종일관 코트를 지배했다. 첫 게임 1-1 동점 상황에서 내리 6점을 쓸어 담으며 기

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게임 막판 15-13, 2점 차로 일시적으로 쫓겼으나 안세영은 곧바로 다시 6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그대로 가볍게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왕즈이는 안세영의 철벽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에 가로막혀 단 한 차례의 반격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10점 차로 패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과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천175달러)을 갈아치우며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새해 벽두부터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와 인도오픈 2연패라는 금자탑을 연달아 쌓아 올린 안세영은 올해도 적수 없는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안세영이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오픈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 선수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력 논란’ 이민성호…6년만에 준결승



선제골을 넣은 백가온.

/연합뉴스

아시안컵 U-23, 호주에 2-1 승

경기력 비판에 시달리던 이민성호가 호주를 물리치고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랐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3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전반 백가온(부산)의 선제골과 후반 신민하(강원)의 헤더 결승골을 쏘아 호주에 2-1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마지막으로 우승한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에 4강 고지에 올랐다.

한국은 2022년 우즈베키스탄, 2024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거꾸로 8강에서 탈락했다.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한 끝에 다른 팀의 도움으로 겨우 조 2위에 올라 8강에 진출한 이민성호는 이날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고 승리까지 거두며 반전을 이뤄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에 도전해야 하는 이민성호의 기대 이하 경기력

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던 터였다.

한국의 준결승 상대는 '아시아 최강' 일본이다.

일본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겨냥해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도 조별리그에서 도합 10골을 넣고 무실점을 기록하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3전 전승을 거뒀다.

8강에서는 요르단과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겨 준결승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은 20일 오후 8시 30분 같은 곳에서 결승행을 다룬다.

또 다른 4강 대진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과 역대 첫 4강 진출에 성공한 중국으로 결정됐다.

중국은 17일 '난적'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극적으로 준결승 진출 티켓을 품었다.

2013년 출범한 이 대회에서 중국이 조별리그 통과는 물론 4강까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남, 10대 '특급 루키' 골키퍼 조민협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2007년생 '특급 루키' 골키퍼 조민협(사진)을 영입했다.

185cm·75kg의 조민협은 빌드업 능력과 높은 집중력, 침착한 경기 운영이 강점으로 제주서초 재학 중이었던 지난 2020년 제32회 차범근축구상 골키퍼 부문 수상자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조민협은 이후 FC서울 산하 유소년팀인 오산중(U15)과 오산고(U18)를 거쳐 프로 무대에 준비했다.

그는 오산고 3학년이었던 지난해 공식대회 32경기에 출전해 25골만을 내주면서 '0점대' 실점률을 장식했다.

조민협의 철벽 방어를 앞세운 오산고는 지난해 3월 광양에서 열린 제26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와 10월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고등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오산고는 5월 K리그 주니어 전반기 1위도 기록했다.

연령별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등 고교 최고 수준의 골키퍼로 꼽힌 그는 "만행" 최봉진(33)과



이준희(32)로 구성된 전남 골키퍼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조민협은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디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설렘도 크다. 막내로서, 신인

으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훈련과 경기에 임해, 저러는 선수를 팬분들께 알리고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프로 경향이 풍부한 신화웅 골키퍼 코치님을 비롯해 최봉진, 이준희 두 골키퍼 선배님과 함께 훈련하며 많은 걸 배워, 팀에 보탬이 되는 골키퍼로 성장하고 나아가 승격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